목어

청계천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청계천…. 맑은 계류가 흐르는 냇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 뇌리에 박혀있는 '청계천'은 차량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삭막한 고가도로다. 청계천 입장에선 너무도 억울한 일. 이제 그러한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해원되는가? 청계천 복원 계획이 발표되고, 맑은 계류가 시내 한복판을 흐르는 서울의 꿈이 푸른 하늘처럼 펼쳐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대한 비용과 공사 과정의 교통대란에 대한 염려의 구름이 그 한 켠을 차지하고, 대책 없는 철거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 천둥처럼 울리기도 한다.

이 그림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가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그리는 청계천 복원의 그림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조심에 조심을 다해야 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이제는 몇 사람의 뜻에 의해 후다닥 해치웠다가 두고두고 지탄받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면 요즈음 우리는 앞날에 또 복원해야 하는 청계천 복개 공사 같은 것을 여기저기서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만금이 그렇고, 생색내기 식의 대형 댐 공사가 그렇다. 여전히 과거의 개발지상주의의 망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 지은 업을 단칼에 자르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더 나쁜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기에, 조심해서 매듭을 잘 풀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큰 방향에 대해 헷갈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장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은 옳지만, 그것이 지나쳐 잘못된 방향을 옳은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에 이르면, 이를 일러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는 것이리라.

범죄방지에 스님들 앞장

스님들이 청소년들의 가출과 범죄를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州)의 공업도시 로웰은 가출 경험이 있는 동남아시아계 청소년들을 캄보디아 출신 스님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미국에서 범죄방지를 위해 불교계 지도자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동남아시아계 인구 증가로 관련 범죄가 늘어나 골머리를 앓던 로웰시는 이번 범죄방지프로그램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장군죽비

국방부 대령, 스님 시위도구 강탈

국방부 앞에서 김태복 장군 사건 관련 1인 시위를 하던 태허 스님(용마산 선은사 주지)이 시위도구를 강탈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태복 장군의 명예회복과 군사법원장인 박 모 대령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1인 시위를 하던 태허 스님은 7월 3일 국방부 앞에서 박 대령에게 들고 있던 시위도구(피켓) 3개를 강탈당했다. 박 대령은 시위도구를 강탈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불자 세상보기

유승무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대화와 타협' 없는 노사문화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노사갈등은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보편적 현상이다. 자본주의사회의 생산은 자본과 노동 간의 사회적 결합에 의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 결합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은 시장에서 화폐로 전화되어 다시 노동과 자본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때문에 노사갈등과 그 반복성은 자본주의사회의 내재적 본성이다.

그러나 노사갈등이 표출되고 해소되는 방식은 각 사회마다 다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본주의 '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크게 대별해 볼 때, 시장기제를 강조하는 '영미식 자본주의'냐 혹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라인형 자본주의'냐에 따라 노사갈등의 양상은 완전히 다르다. 전자의 경우 노사갈등은 전적으로 시장기제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시장 장악력이 약한 약자는 곧 패배자가 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국가의 개입에 의한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에 따라 노사갈등이 조정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가 유리해지고 어떤 때는 노동자가 유리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통상 우리는 전자를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모델로, 후자를 유럽식 조합주의 모델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그에 기초한 노사문화의 제도화이다.

그러면, 한국사회의 노사갈등 양상과 그 해결방식을 보자. 주지하듯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발전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그 동안 한국사회는 국가에 의해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노사갈등을 억제했거나 혹은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는 국가의 개입에 의한 조합주의적 방식으로 노사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경영자는 영미식 모델을 선호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파업 중심의 극한적 투쟁방식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사회의 일각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거나 약하기 때문에 영미식 모델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럽식 조합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노사관계 및 갈등해결방식이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최근 일련의 파업사태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일관된 정책기조 없이 대응한 것도 우리사회에 제도화된 노사문화가 부재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문화에 부합하고 한국사회에 적합한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불교에 주목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불교의 연기설에 입각할 경우, 생산의 사회적 성격은 노자(勞資)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노사관계의 매개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 발생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노사관계에는 노사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이미 생물권과 생명권,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사회 전체의 연대책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럴 경우, 노사갈등은 노사간의 상생을 넘어서서 모든 존재의 상생을 결과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제도화는 형식적으로는 조합주의적 형태를 띠겠지만 내용적으로는 노사, 정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와 같은 공익단체의 참여가 모두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 재검토 관련 국민 토론회

환경과 조화이룬 '지속 가능한 개발' 절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재검토 관련 국민토론회가 1일 열렸다. 노선재검토위에 참여한 10명의 위원들이 토론자로 나선 토론회에서 조상희 우이령보존회 부회장과 한형관 한맥기술 전무, 허광 환경영향평가협회 이사, 현고스님(조계종 기획실장)이 지명토론자로 나와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편집자주>

조상희(우이령 보존회 부회장)

의정부 외곽 우회노선이 결정되면 의정부 시민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인식하는데 이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무조정실도 편가르기식 논의를 진행시킨 것은 잘못이며 조사 및 토의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다.

사업 명칭과 관련해 의미를 축소시켜 '사패산'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또 북한산은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할 정도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산 관통도로를 건설할 경우 산의 모습은 달라지고 결국 역사가 달라지게 된다.

'길이 아니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지금 상황에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당초에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왜 서울시 안으로 도로를 건설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또 노원구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교통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며, 서울시의 공사를 일본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빌려온다는 점을 볼 때에도 이번 사업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허광(환경영향평가협회 이사, 안양대 겸임교수)

국립공원 관통노선으로 갈 것이냐, 외곽순환노선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립공원의 생명체가 중요한 만큼 (국립공원)밖의 생명체도 중요하다. 환경파괴의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교토의정서가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돼 우리가 '탄소세'를 내야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위원들이 일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분석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국무조정실이 해야 했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노선이 바뀐다면 더 큰 갈등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 국토 면적의 67%가 산으로 구성돼 있는데 산을 지나지 않고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에 관한 분석도 잘못된 것 같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범은 바로 중국의 공해이기 때문이다.

1. 조상희-사업명칭과 관련 의미축소 잘못
2. 허광-지역이기주의에 노선바뀌어서야…
3. 현고스님-효율성, 경제성만 따지면 안돼
4. 한형관-정치적으로 판단말고 결과토대로

현고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북한산 관통노선에 대해 대안이 없고 기존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빈곤의 시절에는 경제개발이 우선이고 환경은 안중에도 없었지만 지금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화두다. 배고픔의 논리에 입각한 개발은 합리성을 갖지 못한다. 또 국민은 양보다 질을 원하는 가치변화를 하고 있다. 북한산 문제도 양보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생각해야 한다.

불교계는 개발과 환경을 대등한 가치척도에 놓고 판단하자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노선재검토위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만 가지고 노선을 검토한 것이 공정성 시비를 불러온 동기가 됐으며, 당시 합의에 입각한 노선검토위 구성이 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북한산은 국립공원인데 일반임야와 같은 수준에 놓고 판단하려는 점도 잘못됐다. 일반임야처럼 마구잡이식 개발을 하려면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먼저 국립공원지정 해지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형관(한맥기술 전무)

이번 조사 내용이 너무 선동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북한산 문제에 대한 가치관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변한 것이 안타깝다.

북한산 관통도로라는 것은 북한산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산의 한 봉우리인 사패산에 터널을 시공하는 것이다. 나를 비롯해 북한산 노선 검토에 참여한 공무원, 시공회사 관계자들 모두 항상 환경을 염두에 두고 노선을 계획·설계해 왔다.

지난 7년여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이 지연되면서 우리가 받은 직·간접의 피해는 매우 크며, 조속히 완공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난개발이 우려되기도 한다.

도로건설절차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 설계를 비롯해 주민합동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모두 합법적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의 노선은 환경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고려한 합리적인 노선이다. 7년여간 진행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노선변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현 노선의 정당성이 입증된다고 생각한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주 소 및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광주일원	주용직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제천지국	제천 / 단양	청산스님	043)644-4366 / 011-485-4080

육임(六壬) 수강생 모집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효사숙」 제6기
한국육임학회 홈페이지 : www.taotemple.net

육임학당 「효사숙」 제 6기 육임학 수강생을 모집 합니다.

학습기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시간씩 3개월 13주 52시간이며, 음양오행의 기초·기본을 모르는 분들은 매주 본 강의 전 2시간에 걸쳐 사전 교습 받게 됩니다.
역학공부 긴 방황의 끝이 될것입니다.
육임(六壬)은 사람의 일(人事)을 밝히는데는 따를 학문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문(전화)온 시간만 보면 그 사람이 「무슨일로 왔는지」「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현재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등 20여가지를 미리 알고 먼저 말 해주게 되는 최고·제일의 고등한 오행술 입니다. 묻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릇 활인천역자의 예언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상담은 공허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긴 운로(運路)를 따지는 데는 사주(四柱)만한 학문도 없습니다만, 당장의 담면 길흉성부(吉凶咸否)를 판단하는데는 육임(六壬)을 능가하는 학문이 없습니다. 육임은 적중률이 신시(神示) 입니다.
문제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먼 훗날의 일을 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되고 안되고, 할지 말지 등의 의문을 물으러 온다는데 있습니다. 좀더 확실히 말하자면 다른공부 10년을 해도 갈급(渴汲)한 목전사(目前事)를 딱 딱 부러뜨릴 수 있기가 힘듭니다. 일반 오행술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임에서의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쉽고, 분명하며, 정확합니다. 또한 '몇년 몇 월, 몇 일, 몇 시에 누가 무엇때문에 올 것이며 그일이 어떻게 될것인가?'를 오늘 감지하여 밝혀놓을 수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무슨 부정빌미가 왜 들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이 났는지」등을 정확히 말해주고 그 해소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상을 통해 검증되어 있는 육임의 영험입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육임학당 「효사숙」 강주 姚史 선생께서는 「육임래정비법」,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육임운명판단법」, 「육임비요형이상법」, 「육임비디오강의」, 「육임래정비법CD」, 「육임신수비결」, 「육임래정비법휴대용」, 「육임래정비법日語版」 등 11권의 육임서를 저술하여 비선(秘線)으로만 전달, 우리 활인천역자 들의 실력을 크게 고양시킨 분으로서 3년전부터 육임강의를 시작하여 전국에 육임바람을 일으킨 장본인 입니다.
여러분의 일대 전기(轉機)를 위해, 여러분을 「효사숙」 제 6기로 초대합니다.
단, 활인천역자로서의 그릇인지 여부와, 공부한 결실이 있어질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입강 받고 있습니다. 아무나 공부시키지는 않습니다. 육임학당 「효사숙」이 그동안 지켜온 원칙덕목 입니다.

■강 사 : 姚 史
■강의시작 : 7월 18일 오후 5시 (기초·기본 교습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등록마감 : 7 월 12일 12시 까지 면접심사후 등록
■정 원 : 30명 ■등 록 비 : 1백 5십만원
■교 재 : 「효사육임강의록 上·下 중보판」 드림
■장 소 : 수유리 강북구청 왼쪽 옆건물 4층 「육임학당 효사숙」 (4호선 수유역 8번출구)
■특 전 : 수료후 본회 회원으로서 임원·회원대상 「수요고급실기 강의」를 무료 지속 수강하게 됩니다.

●육임학당 「광주숙」 제3기 효사선생 직강 매주 월요일 오후3시 (011-9606-7090 유선선생)
●육임학당 「진주숙」 제2기 효사선생 직강 매주 일요일 오후4시 (055-755-1644 남곡선생)

문의 : 02-993-8680 / 02-998-8683
입금계좌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